

##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 준공식 축사

존경하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공사를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건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 오신 부산시와 중앙부처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김해공항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주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9위의 항공운송강국인 대한민국의 제2공항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확장으로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으로써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제선 여객과 화물처리 능력이 세 배 가까이 향상되었고, 항공기 계류장

도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해외를 오갈 때 인천공항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김해공항을 통해 부산·경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해공항이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신설공사와 공항을 경유하는 김해~사상 경전철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김해공항이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역 발전 전망에 근거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 수요에 대해서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이 되면 이곳 동남권의 항공 수요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15년 정도는 김해공항으로도 큰 불편이 없겠지만, 공항 개발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리부터 준비는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 용역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달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체 없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제 모습을 갖추어 가면,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이 동북

아 물류중심의 관문이 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물류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이곳에 내려오는 13개 공공기관도 부산의 영상·금융·관광·컨벤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하야리아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이곳은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것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북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8조 4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통해 12만 명의 일자리와 32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역사업입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북항은 관광과 레저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 시민의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제 임기 동안 부산 발전을 위한 많은 토대들이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산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부산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역량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부산은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갖춘 품격 있는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끄는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해공항의 확장 준공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